
예수의 민중전기

오늘은 마르코복음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중심으로 민중인 예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어젯밤에는 ‘예수가 민중이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볼트만과 대화한 것에 대하여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 가운데 어느 분이 “어떠한 의미에서 예수가 민중인가?”라는 질문을 하였기에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어떤 눈으로 마르코복음서를 보았기에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와 예수

마르코복음서에 따라서(그리고 좀 모자라는 부분은 공관복음서를 함께 보면서) 예수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코에 의하면, 예수의 가계(家系)는 다윗의 자손은 아닙니다. 루가와 마태오에서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전제하고 무리하게 족보를 만들어 보이려 합니다만, 둘 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마르코에는 전사(前史)라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예수의 신분이나 가문 같